전북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금연성공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병원 외래1관 1층
TEL : 063) 859-2400 ~ 2410 FAX : 063) 859-2414

전주매일

2019년 4월 22일 월요일 (음 3월 18일) 제227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국 최초 소상공 카드수수료 지원

도, 연매출 8800만원 이하 0.8% 중 0.3% 최대 20만원
6월 1일부터 시·군 접수
유흥·도박업 등은 제외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영세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직접 지원한다.

전북도는 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비용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북형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9일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카드수수료를 인하하여 수수료율이 상당 부분 낮아진 상태이나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 있는 실정이었다.

또한, 임차료, 인건비 등의 영업비용 중에서 카드수수료가 20%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소비자 결제 지급수단 중 카드사용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은 현장에서 수수료 부담 인하를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

이에 전북도는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경영부담 요인으로 꼽고 있는 카드수수료에 대해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도 차원에서 신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북형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그동안 전문가, 소상공인들과 여러 차례 소통의 시간을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지원기준은 전년도 매출액 8,8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으로 카드 매출액의 0.3%(최대 20만원)를 지원한다.

전년도 매출액 8,800만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는 카드 결제액의 0.8%인 바 이중 0.3%를 지원함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소상공인인은 0.5%만 부담하면 된다.

유흥업·도박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능하며, 4만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행은 모든 사업자의 전년도 매출액이 확정되는 6월 1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시군에서 동시 접수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전년도 총 매출액과 카드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을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해당 시군에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준과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 및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사업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도 일자리정책관(☎280-3788)이나 시군 소상공인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나석훈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그간 정부의 카드수수료 완화 노력에도 불구, 카드결제 증가 및 모바일 간편결제 확산 등으로 현장에서 수수료 부담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 경쟁력을 갖추는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오늘 '지구의 날 기념' 소등행사 추진

전북도는 제49회 지구의 날을 맞아 '지구의 날 기념' 소등행사를 실시한다.

'지구의 날'은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제정한 세계 기념일로 매년 4월 22일이다.

전북도는 올해로 49회를 맞은 22일 지구의 날에 도 청사를 비롯해 14개 시군 등 159개소 공공기관, 호남제일문 등 7개 상징물, 공동주택 275개소 9만4,877세대가 동참한 가운데 오후 8시부터 10분간 일제히 소등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용만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소등행사에 많은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며,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에너지 절약 등 저탄소생활 실천운동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고창 학원농장 청보리밭에서 '찰칵'

제16회 고창 청보리밭 축제가 한창인 지난 20일 고창군 공음면 학원농장에서 관광객들이 넓게 펼쳐진 보리밭 원두막에서 사진을 찍으며 주말을 만끽하고 있다. 고창 청보리밭 축제는 5월 12일까지 진행된다.

2019 전북 트래블마트 '역사·문화가 숨쉬는 전북으로 오세요'

28일까지 서울서 개최
남원 광한루 건립 600년
익산 미륵사지석탑
보수정비 준공에 맞춰
도, 13개 시군과 홍보 전개

전북도가 외래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지난 19일부터 28일까지 서울에서 여행상품 기획자, 홍보 관계자, 일반인 대상으로 상담회, 홍보관 운영 및 이벤트 행사, 찾아가는 관광안내소 운영, 전북관광기념품100선 전시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해 전북여행상품 안내 및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소개한다. 특히 올해 남원 광한루 건립 600년과 오는 30일 익산 미륵사지석탑 보수정비 준공에 맞춰 전북관광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한다.

먼저, 전북도와 13개 시·군 및 기관 그리고 관광관련 업계는 지난 19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K-스타일 허브에서 국내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수도권 주요여행사 및 홍보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1:1 상담하는 '2019 전북 트래블 마트(이하 '트래블마트')'를 실시했다.

이번 트래블 마트에는 전북도를 비롯해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등 13개 시·군, 유관기관, 호텔, 스파 등 총 30개 기관 및 업체에서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도를 비롯한 참여기관과 동남아, 중화권, 일본권, 구미권 등 여행상품을 기획하는 한그루여행사, 유에스트래블, 아름여행사 등 전북도 전담여행사 11개사를 비롯한 온라인여행사 및 홍보관계자 간 1:1 상담(B2B)과 일반인 대상 홍보 및 이벤트(B2C)가 진행됐다.

이날 오후 6시에는 윤동욱 문화체육관광국장 주재로 참여기관 관광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관광관련 신문사 및 온오프라인 여행사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전북도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19일부터 21일까지 전북도와 전주시, 남원시, 장수군, 순창군, 완주군 콩쥐팥쥐 한옥리조트는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앞에서 관광홍보관 운영 및 이벤트 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남원 광한루원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익산 미륵사지석탑을 연계한 수학여행 및 가족나들이 여행상품을 중점 홍보했다.

또한 전북관광기념품 100선작 50여개 작품이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동안 K-스타일 허브에서 전시한다. 전북도 관광기념품 100선은 전북을 대표하는 매력적이고 우수한 관광기념품으로서 지난 2015년부터 매해 25작품씩 공모해 2018년까지 총 100개의 작품이 선정되었다.

이어 전북도는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와 협력해 24일까지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전통놀이 공연, 찾아가는 관광안내소 운영, 보석 전시회 및 보석팔찌 만들기 체험 등을 중심으로 전북 관광홍보전을 실시한다.

익산보석박물관에서는 22일과 23일 한국관광공사서울센터(2층)에서 가넷 및 자수정과 세계유산 백제유물 재현품 탄생석 인장 등 약 172점등 보석전시가 있으며, 서울센터 앞 마당에서는 천연원석을 이용한 보석팔찌 만들기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전북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전북 여행정보를 직접 상담할 수 있고 여행상품을 기획할 수 있도록 차량을 활용한 '전북도 찾아가는 관광안내소'를 22일부터 24일까지 운영해 방문객 대상 현장 이벤트와 숙박업소 및 체험장 할인권을 제공한다.

도 윤동욱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국내·외 관광객이 원하는 관광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전북도는 맞춤형 여행상품을 직접 설계하고 기획하고자 여행사와 일반인 눈높이에 맞는 각계의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다"며 "맞춤형 전북여행상품 홍보를 통해 많은 관광객이 전북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